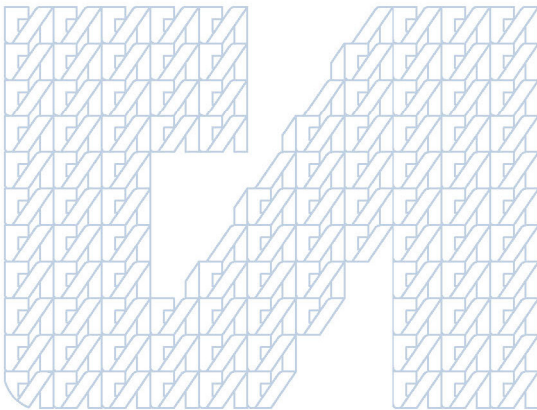


대전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데이트 폭력 인식과 대응 정책 방향

주혜진 · 장은정



연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혜진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운정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수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이슬기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정책연구 2023-41

대전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데이트 폭력 인식과 대응 정책 방향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시행될 필요 있음
 - ‘데이트 폭력’은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 있으나, 가정폭력과 스토킹, 광범위한 범주의 성폭력과 또 다른 측면에서 꾸준히 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예방에 노력할 필요 있음
 - ‘교제 폭력’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본 조사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규정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정서·경제·신체·성적 폭력”을 ‘데이트 폭력’으로 정의하고 관련한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함
- 대전의 대학생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7%에 달하고 있어, 청년층의 데이트 폭력 발생 양상과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태 조사가 요구됨

■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휴학생과 졸업유예자 포함
조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Moaform.com) 활용
조사자 모집 및 참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학 학생상담센터 공문 발송을 통한 공개 홍보• 개별 학과 대상 홍보• 개인별 눈덩이 표집

구분	세부 내용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8월 25일 ~ 9월 4일 • 총 11일
응답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응답자: 1,622명 • 최종 분석 대상자 1,52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986명(64.8%), 남성 536명(35.2%) - 응답자 중 연애 경험 있음 1,040명, 썸 경험 있음 620명
조사 문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한 경험, 피해 경험 • 데이트 폭력 피해 후 대응, 예방 정책과 지원 기관 인지도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여학생보다 강하고, 폭력 수용적 태도도 더 강함

- 여성에 대한 통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음
 -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고,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 ‘안전이별’에 대한 여성의 요구도 남성보다 강하게 나타남
 - “빨리 헤어지기보다 피해없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여성이 더 강하게 동의함
 - 친밀한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폭력 취약성 드러냄

응답자의 약 80%가 데이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폭력에 노출돼 있음

- ‘통제’ 행위는 응답자의 61%가 직접 가하고, 65.1%는 직접 당하고 있어, 데이트 폭력 유형 중 가장 높은 가해·피해율 보임
- ‘언어’ 폭력은 응답자의 38.5%가 직접 당한 경험 있다고 했으며, ‘스토킹’ 폭력도 38.7%가 직접 당한 경험 있다고 응답함

- ‘신체’ 폭력은 24.6%, ‘성적’ 폭력은 30%의 응답자가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함
- 데이트 폭력의 유형 중 가해율이 가장 높았던 행위는 ‘통제’ 관련 이었고, 스토킹이 29.2%로 그다음으로 높았음
 - ‘언어’ 폭력을 직접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 ‘성적 폭력’을 직접 행사했다고 답한 비율은 20.3%임

‘데이트 폭력’이라고 명명한 행위에 대해선 응답자의 7.8%만이 피해를 인정하는 모순 드러냄

-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신체, 언어, 통제, 성, 스토킹)’을 당한 경험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인정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18명, 여성 중 9.5%에 불과했음
- 앞서 여러 유형의 폭력 행위를 친밀한 관계 중 가하고 당했는가를 물었을 때 문항별로 20~60%가 직접 경험한바 있었으나,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스토킹이든 신체 폭력이든 앞서 당했다고 한 비율에 비해 폭력 인정 비율은 매우 낮음
 - 외적 상흔(멍, 상처, 출혈 등)이 남는 경우 폭력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짐
- 실제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언어화해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데이트 폭력 피해 후 47.1%는 어떻게 할지 모르며,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인지도 낮음

-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5.8%임
 -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 20.7%, 남성 13.6%에 머물고 있음
- 데이트 폭력 가해자 분리와 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의 제정 요구도 51.8%에 이름

■ 정책 건의

- 친밀한 관계로 파고든 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해 ‘젠더폭력 대응 전문관’ 설치 등 추진체계 강화
- 젠더폭력 대응 거버넌스에 의한 여러 대응 주체 참여와 예방 교육 다양화
 -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연계하여 성평등한 관점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추진
 - 기존 교사와 대학 내 인권상담센터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활용한 교육자 양성과 파견
- 피해자 개념의 확장 반영한 지원 강화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활성화
 - 대전시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와 자체 사업 활성화
 - 재발 방지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지원 예산 확보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용어의 사용	5
2) 연구 범위	9
3) 연구 방법	9
3. 연구 과정	11
2장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 정책 검토	15
1.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15
1)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 현황	15
2)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17
2.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사례 검토	20
1) 데이트 폭력 관련 선행연구 사례	20
2) 데이트 폭력 예방과 대응 지원 법률과 정책 사례	21
3장 대전지역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27
1. 조사 개요	27
1) 조사 방법	27
2) 주요 조사 내용	27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8
2. 성역할 고정관념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태도	30
1) 성역할 고정관념	30
2)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	31

3.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 경험	35
1)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관련 행위 ‘가한 경험’과 ‘당한 경험’	35
2) 타인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간접 경험	45
4.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과 대응	50
1)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	50
2)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51
3) 데이트 폭력 피해 대응 실태	56
4)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수요	62
5. 소결	68
4장 대전 청년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	75
1. 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화와 추진체계 강화	75
1) 친밀한 관계로 파고든 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75
2)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 발굴과 양성	76
2.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방 프로그램 실행 ..	76
1) 포괄적 성교육의 강화와 확산	76
2)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과 주체 발굴	77
3. 피해자 지원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78
1) 피해자 개념의 확장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강화	78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활성화	79
참고문헌	81
부록	85

표 차례

[표 2-1]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유형별 현황(2019~2021)	15
[표 2-2] 대전광역시 상담기관별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	17
[표 2-3] 2019~2022년 데이트 폭력 사건처리 현황(전국, 대전)	17
[표 2-4] 온라인 범죄 피해 불안	19
[표 2-5]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	19
[표 3-1] 조사 방법	27
[표 3-2] 설문조사 내용	28
[표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표 3-4]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 결과	30
[표 3-5]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	31
[표 3-6] 친밀한 관계 내 ‘안전이별’에 대한 태도	32
[표 3-7]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통제	35
[표 3-8]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언어	37
[표 3-9]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신체적 위협	39
[표 3-10]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경제적 피해	40
[표 3-1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성적 위협	42
[표 3-12]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스토킹	44
[표 3-13] 타인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간접 경험1	46
[표 3-14] 타인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간접 경험2	48
[표 3-15]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 여부	50
[표 3-16]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통제	51
[표 3-17]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언어	52
[표 3-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신체적 위해	53
[표 3-19]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경제적 피해	54
[표 3-20]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성적 피해	54

[표 3-21]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스토킹	56
[표 3-22] 폭력 피해 대응 방법	57
[표 3-23] 폭력 피해 무대응 이유	58
[표 3-24] 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겪은 어려움	59
[표 3-25] 데이트 폭력 피해 후 2차 피해 경험	61
[표 3-26] 대전광역시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인지도	62
[표 3-27] 대전광역시 데이트 폭력 대응 지원기관 인지도	63
[표 3-28] 대전광역시 데이트 폭력 대응 지원기관 이용 현황	65
[표 3-29]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수요	66
[표 3-30]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요	67

그림 차례

[그림 1-1] 5대 여성 대상 폭력	5
[그림 1-2] 데이트 폭력의 범위와 세부 정의	8
[그림 1-3] 연구 수행 절차	11
[그림 2-1]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체계	22
[그림 2-2]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 체계	24
[그림 4-1] 대전지역 젠더폭력 대응 추진 거버넌스	75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과정

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대전지역 대학 재학생 수는 2023년 4월 기준 125,652명으로 같은 시기 대전시 주민등록인구 1,445,214의 약 8.7%에 달함
 - 대학교 학생의 수는 '대학교에 재적되어 있는 학생의 수'를 의미하며,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포함됨
 - 같은 시기 대전 소재 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20,652명임
-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과 대학원생 인구는 사실 대전의 20대 청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과 대전에서의 긍정적 거주 경험은 청년 인구를 계속 유입하고 정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
- 청년의 지역 거주 경험에서 '안전'은 삶의 질과 안녕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여성 청년에게 필수적임
 - 최성식(2022)에 따르면, '연령대별 데이트 폭력 가해자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 행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가 시행돼왔으나, 최근 그 심각성이 공감을 확보하여 중요한 젠더폭력의 유형으로 인지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023년 7월 18일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기존 여성과 남성 사이 발생해 왔던 '성 sexuality 이 관련된 폭력' 행위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면서도 다각화된 폭력 행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 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최근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이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폭력을 규제해 왔으나, 보다 광범위 하면서 다양한 관계 양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제하고 대응하는 적극적 노력은 이제 시행 단계라 할 수 있음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데이트” 혹은 “교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태 규제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음
 -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행위자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명시된 스톱킹 행위에 근거, 관련한 행위 발생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됨(류유선·오윤희, 2022)
- 데이트 폭력 신고와 상담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데이트 폭력과 관련성 높은 범죄로 인식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현황을 보면, 2021년 대전 여성의 피해자 수는 20명이었으나, 2022년 8월까지 집계된 여성 피해자의 수는 174명으로 크게 증가함(류유선·오윤희, 2022: 519쪽)
- 남성의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과 대응 촉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어떤 대응과 예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해야 함
- 본 연구는 청년, 특히 지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실태를 살펴보고, 조사를 통한 피해 양상과 규모 추정 그리고 대응 방안 수립의 방향성을 지자체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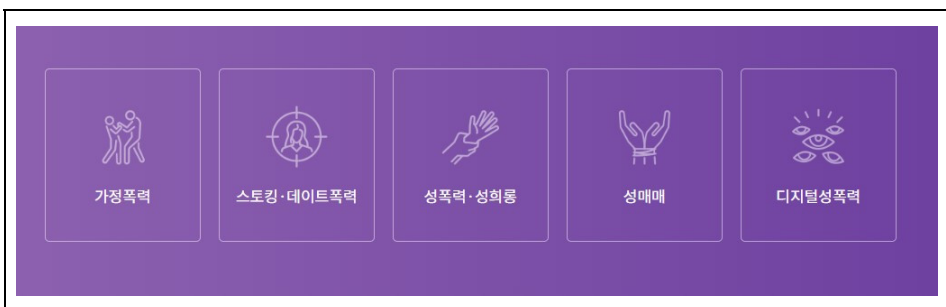
- 대전지역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발생 실태 파악
- 대전지역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 폭력’ 인식 격차 및 피해 발생 양상 차이 파악
- 향후 대전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방향 정립
- 데이트 폭력 관련 공표 통계 수집과 분석을 통한 대응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 제시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용어의 사용

여성 대상 폭력의 범위와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그 특징에 따라 정의하고 있음



[그림 1-1] 5대 여성 대상 폭력

그림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바로알기
(여성폭력 Zoom-in) 홈페이지(<https://www.stop.or.kr/women/>)

- ‘스토킹·교제 폭력’ ‘디지털 성폭력’은 다른 폭력을 정의하는 용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용어이며,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법이나, 그 법을 제정하는 데 근거로 활용됐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됐으며, 민감도 또한 달라졌음을 의미함

□ 교제 폭력 아닌 데이트 폭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가 아니라 ‘스토킹·교제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을 사용하여 직접 해당 폭력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스토킹 폭력’과 ‘데이트 혹은 교제 폭력’은 상당 부분 행태가 겹친다는 면에서 또한 친밀한 관계 관련해 발생하는 속성이 유사하다는 면에서 함께 묶어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함
- “교제 폭력”이란 단어가 문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 실생활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
 - “데이트”라는 용어의 사용이 폭력 행위의 무게감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지만, 친밀한 관계 형성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용어를 “교제”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폭력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성폭력과 가정폭력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지만, 그 친밀함의 범위와 양상은 ‘일방적 사랑, ‘썸’으로 표현되는 친밀성 형성의 초기 단계,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진 관계¹⁾ 등 규정하기 복잡하고 애매할 수 있기에, “교제”란 단어가 오히려 여러 친밀한 관계 양상을 배제한다는 한계 있음
- “데이트 폭력”이 더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측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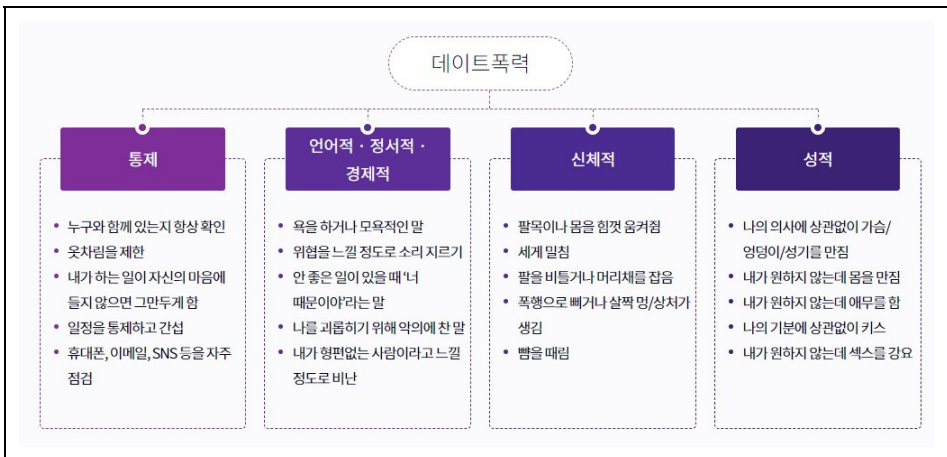
1) 친밀한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요구하는 헌신 없이 주로 육체적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관계 (friends with benefits)나 개방적 관계(open relationship) 등 친밀한 관계 형태와 정의는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친한 친구끼리의 만남도 ‘데이트’로 쉽게 쓰기도 하고,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시간 보내기도 ‘데이트’로 명명되기도 해서 친밀성 형성의 여러 단계를 포괄한다는 특징이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교제 폭력’을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인뿐 아니라 정책 용어로도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 쓰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함

□ 데이트 폭력의 정의

- 심선희·최금순(2023)은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만남을 갖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스토킹과 통제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음
- ‘만나는 관계’ 혹은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 양상 전체를 의미하는데, 문제적인 것은 ‘만나는 관계’ 혹은 ‘데이트하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데이트하는 관계’를 “좁게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뿐 아니라, “넓게는 부킹, 소개팅, 채팅, 맞선 등” 친밀한 관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고, 호감만 가지고 있는 상태, 일명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음
 - 즉,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속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를 근거로 발생하는 폭력 양상을 광범위하게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친밀성’ 혹은 ‘사랑’도 (규정 자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삶에 대한 통제와 타인의 세계로의 침범’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속성을 지닌 폭력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은 사실임
 - 본 연구는 개인 간 완전 평등한 관계 정립을 이상적 상태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통제와 침범, 그리고 폭력에 대한 규제와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로 두고 설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 수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의를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시한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세부 형태 양상을 설문조사 문항 개발과 해석에 활용하고 있음
- 데이트 폭력은 크게 '통제' '언어' '정서' '경제' '신체' '성 sexuality'의 영역에서 발생함
- 옷차림 제한 등 가벼운 통제부터 돈을 갈취하고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까지 여러 범위에서의 다양한 행태를 포함함
 -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고, 돈도 빌릴 수 있고, 몸짓을 써서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매우 유사하거나, 강력한 연계가 형성될 위험을 염두해야 함
-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 형성의 내용과 방법이 폭력과 구분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2차 가해가 쉽게 발생하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규정하는 '데이트 폭력'의 범위와 정의는 다음의 그림으로 요약 가능함



[그림 1-2] 데이트 폭력의 범위와 세부 정의

그림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바로알기
 (여성폭력 Zoom-in) 홈페이지(<https://www.stop.or.kr/women/>)

2) 연구 범위

대상 범위

- 본 연구를 통해 데이트 폭력 발생 양상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전 소재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임
 - ‘재학 중’인 학생은 ‘휴학’과 ‘졸업 유예’ 상태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고 있음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상정하고 있으나, 20대 청년이 주 응답 대상임

정책적 범위

-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여성폭력대응 및 예방 정책과 관련 기관에 대한 수요와 활용을 점검함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제1차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에 명시된 정책과 관련 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함

3) 연구 방법

문헌 검토와 자료 분석

- 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 검토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차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현황 파악 자료 수집과 분석

- 데이트 폭력 관련 통계 수집
 -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 건, 기관 현황
 - 데이트 폭력 사건 발생과 처리, 피해자 현황

○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관련 보고서 검토

대전 소재 대학교(원)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시행과 결과 분석

- 2023년 8월 25일에서 9월 4일까지 11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설문조사 시행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시한 ‘데이트 폭력’의 범위와 정의에 근거한 데이트 폭력 경험 양상과 대응, 그리고 예방을 위한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설문 문항 구성

여성 폭력 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연구원 연구자, 지역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대전시 여성정책 담당자 등 7인과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 지역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과 결과 해석에 대한 자문 청취
- 청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예방 정책과 피해자 지원 사업의 특성 관련 자문 청취

3. 연구 과정

단계	방법	내용
연구 설계	정책 담당자 · 연구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과 정책추진 실무진 회의 • 연구 방향, 방법 및 내용 구성 협의
▼		
문헌분석	문헌검토 ·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내용 확정 • 선행연구에 따른 데이터 폭력 범위와 정의 검토 • 통계자료 현황 파악 및 주요 법률 검토 • 관련 기초 통계 수집
▼		
대전 소재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폭력 인식과 대응 설문조사지 개발과 조사 시행	설문 조사지 문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를 통해 데이터 폭력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6대 영역(통제, 언어, 정서, 경제, 신체, 성적) 선정 •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터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 행위 경험과 대응, 정책 수요 등
	설문조사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과 행위 사이 격차 분석 • 인식과 행위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등
▼		
정책 활용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예방 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대상 • 콜로키움과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도출된 설문결과의 정책적 의미, 기존 정책 계획과의 연계, 활용 방안 제안
▼		
연구 결과 정리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결과 분석의 시각화 및 부록 구성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제안

[그림 1-3] 연구 수행 절차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 정책 검토

1.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2.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사례 검토

2장

2장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 정책 검토

1.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1)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 현황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긴급한 구조와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일 특수 전화 서비스임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지원 창구이자, 상담과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와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법원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 대전에도 1개소(042-1366, 중구 대흥로 128 대전 YWCA)가 운영 중임
- 1366의 상담 유형을 폭력 유형에 따라 다음의 표로 정리함

[표 2-1]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유형별 현황(2019~2021)

구분	합계	폭력피해 상담							기타 (단순문의, 끊어짐 등)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2019	내국인	14,264	8,847	1,173	143	627	83	135	3,256
	외국인	865	769	7	21	9	-	-	59
	전체	15,129	9,616	1,180	164	636	83	135	3,315
	점유율 (%)	100.0	63.5	7.7	1.0	4.2	0.5	0.8	21.9
2020	내국인	12,844	6,986	884	199	669	90	227	3,789
	외국인	439	369	6	0	2	0	4	58
	전체	13,303	7,355	890	199	671	90	231	3,867
	점유율 (%)	100.0	55.2	6.6	1.4	5.0	0.6	1.7	29.0

구분	합계	폭력피해 상담						기타 (단순문의, 끊어짐 등)	
		가정 폭력	성폭력	성 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2021									
전국	내국인	245,374	157,125	19,411	3,019	9,602	2,680	6920	46,617
	외국인	15,374	14,227	280	29	222	30	133	453
	전체	26,0748	17,1352	19,691	3,048	9,824	2,710	7,053	47,070
	점유율 (%)	100.0	65.7	7.5	1.1	3.7	1.0	2.7	18.0
대전	내국인	12,167	6,662	811	82	452	160	260	3,740
	외국인	621	547	3	10	1	1	2	57
	전체	12,788	7,209	814	92	453	161	262	3,797
	점유율 (%)	100.0	56.3	6.3	0.7	3.5	1.2	2.0	29.6

출처: 류유선·오윤희(2022), 『2022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가족의 삶』에서 재인용

- 여성 대상 폭력 중 1366에 상담을 의뢰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 폭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 데이트 폭력은 2019년 4.2%, 2020년 5.0% 2021년 3.5%를 보이고 있으며, 스토킹의 점유율은 2019년 0.5%, 2020년 0.6%, 2021년 1.2%로 상승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가 1366분 아니라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3년 상담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은 연간 450여 건 이상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표 2-2] 대전광역시 상담기관별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

상담 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말 기준)	합계
다힘(여민회)	0	4	0	4
해바라기센터	0	9	4	13
1366대전센터	453	444	231	1,128
계	453	457	235	1,145

출처: 대전시 내부자료

- 1366 대전센터가 주로 데이트 폭력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성단체인 여민회와 폭력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음

2)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 대전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경찰이 규정한 ‘데이트 폭력’ 발생 및 유형별 검거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전국적으로도 대전지역에서도 데이트 폭력 관련해 경찰에 신고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증가추세임
 - 대전은 2019년 신고 2,020건에서 2022년 2,846건으로 증가함

[표 2-3] 2019~2022년 데이트 폭력 사건처리 현황(전국, 대전)

구분		유형별 신고와 검거 현황								
		2019		2020		2021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국	신고상담 등 건수 (건)	50,581		49,225		57,305		70,790		
	형사 입건 (명)	전체	9,858	100.0	8,982	100.0	10,554	100.0	12,841	100.0
		폭행상해	7,003	71.0	6,416	71.4	7,507	71.0	9,068	70.6
		체포, 감금, 협박	1,067	10.8	898	10.0	1,000	9.5	1,154	8.9
		살인 (기수+미수)	35	0.4	31	0.3	16	0.2	13	0.1

유형별 신고와 검거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성폭력	84	0.9	51	0.6	145	1.4	274	2.1	
	경범죄 등 기타	1,669	16.9	1,586	17.7	1,886	17.9	1,568	12.2	
신고상담 등 건수 (건)		2,020		2,052		2,300		2,846		
대전	형사입건 (명)	전체	479	100.0	603	100.0	712	100.0	764	100.0
		폭행상해	363	75.8	442	73.3	515	72.3	588	76.9
		체포, 감금, 협박	35	7.3	38	6.3	77	10.8	54	7.0
		살인 (기수+미수)	3	0.6			3	0.4	1	0.1
		성폭력	15	3.1	18	3.0	10	1.4	4	0.5
		경범죄 등 기타	63	13.2	105	17.4	107	15.1	117	15.3

- 주: 1. 데이트 폭력 피해자 수는 쌍방 제외 인원
 2. 경찰청은 가해자의 성별, 사이버 폭력 관련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3. '경범죄 등 기타'는 경범죄,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등을 의미함
 4. 신고, 상담건수는 형사입건, 상담반려, 즉결심판(통고처분), 훈방처리한 민원을 포함함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11106722)

- 데이트 폭력 신고가 느는 만큼 형사입건의 수도 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형사입건된 데이트 폭력 유형은 '폭행 상해'가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범죄 등 기타' 유형이 차지하고 있음
 - 경범죄 등 기타 유형은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과 관련돼 있는데, 당초 연구진은 명예훼손이 사이버 폭력과 깊이 연계될 것이라 생각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데이트 폭력과 연계된 사이버 폭력은 통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음
 - 소셜 미디어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cyber bullying),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이 어떤 폭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상세 통계 생산이 필요함
-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과 연계된 사이버 폭력을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

지만, 이별 후 혹은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폭력임

- (20대) 청년 여성의 온라인 범죄 피해 불안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4] 온라인 범죄 피해 불안

구분		개인 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사용 피해 불안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 불안
전체	전체	68.0	50.3
	여성	72.8	60.3
	남성	63.3	40.3
여성	15세~18세	71.5	66.5
	19세~29세	80.8	74.1
	30세~39세	85.3	74.1
	40세~49세	81.2	68.4
	50세~59세	77.5	60.8
	60세 이상	55.1	40.8
남성	15세~18세	52.6	35.6
	19세~29세	62.1	36.9
	30세~39세	68.2	42.0
	40세~49세	69.0	43.7
	50세~59세	68.2	44.6
	60세 이상	54.7	36.6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재인용

- 대전시는 대전여민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여민회 소속 ‘다힘’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5]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

구분	합계	2021	2022	2023 (6월말)
다힘(대전여민회)	2,664	271	1509	884

출처: 대전시 내부자료

2.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사례 검토

1) 데이트 폭력 관련 선행연구 사례

- 2018년 제정(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2021)가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광의의 시각에서 전반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정폭력’ 개념에서 보다 심화되고 확대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있음
 - 가해자와의 관계를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교제)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분석함
 - 여성가족부의 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로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청년층 특화 실태나 지역을 구분한 상세 분석이 없어 대전지역의 여성 대상 폭력 양상을 상세히 파악하기 불가능함
- 강희영(2017)은 서울에 거주하는 20~60세 미만의 여성 중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와 정책 지원 욕구를 파악한 바 있음
 - 친밀한 관계의 특성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광역지자체에서 조사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화진 외(2020)는 제주시 젠더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한 통계와 16세에서 50세 미만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실질적 폭력 발생 양상과 피해 실태를 설문조사로 살펴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 당사자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 정혜원 외(2022)는 경기도의 여성폭력 발생 양상 파악과 지원 정책 도출을 위해 19세 이상 75 이하의 성인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스토킹 등 폭력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예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여성가족부 및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된 데이트 폭력 실태 연구들은 연구 대상 개념의 정립과 분석 시각을 제공한 기여가 크지만, 대부분 광범위한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청년층의 특화된 경험을 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데이트 폭력 예방과 대응 지원 법률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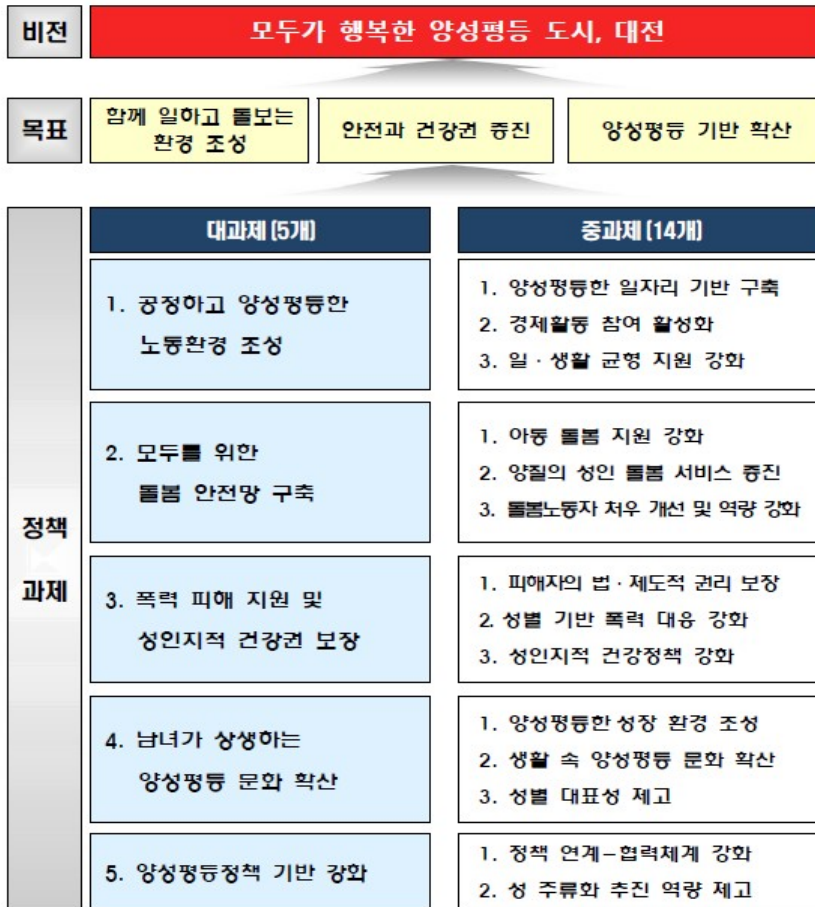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과 이를 통한 데이트 폭력의 구체화

- 2018년 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트 폭력 대응을 위한 대책 관련 보도자료가 발표됨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아닌 중범죄로 처벌할 것을 공표함
 - 데이트 폭력 행위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공표함
 - 친밀한 관계 형성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피해자 치료 회복 등의 서비스 강화와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방침으로 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20.)되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제정됨(2023.1.17.)
 -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접근, 막아서기, 기다리고 지켜보기, 우편물과 물건 등 발송, 물건 훼손, 개인 정보 노출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법률이 명시한 스토킹행위는 '데이트 폭력'을 규정하는 데도 상당 부분 활용됐음
- '스토킹'이란 용어를 활용, 데이트 폭력의 범위와 정의를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음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전광역시 2023년 시행계획의 비전과 목표에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과제 중 하나로 '폭력 피해 지원'이 제시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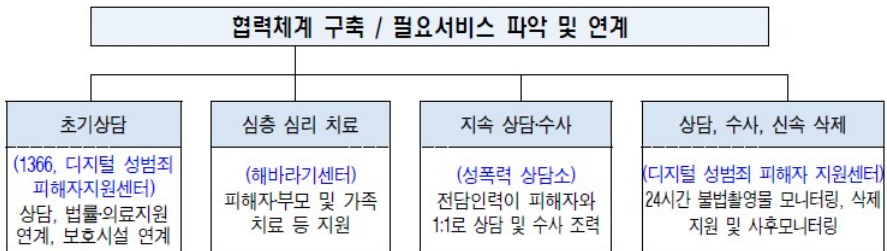
[그림 2-1]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체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2023년 시행계획에는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영역에 10개 단위과제에 138억 4천 2백 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음
 - ‘폭력 피해 통합 서비스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와 ‘여성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등이 사업이 ‘5대 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친화환경 조성’ 사업과 ‘시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의 사업이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별도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의 대전시 시행계획에는 ‘대학 내 성폭력 사망사건’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사건’ 등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성이 언급돼 있음
 - 2023년 대전시 시행계획에는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외에도 ‘시민참여형 성범죄 예방 대응 체계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제시됨
 - 여성폭력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 대전시 예산은 (지방비) 52억 2천 3백 만원으로, 2020년 33억 9천 5백 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대전시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긴급지원센터 2개소, 폭력피해자상담소 11개소, 보호시설 6개소가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2023년엔 (국비와 지방비 포함) 16억 1천 5백 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 폭력피해자 지원사업과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11개가 운영되고 있음
 - 폭력예방교육 3개 사업, 구조 및 현장지원 2개 사업,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체계 구축

○ 대전시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을 위한 대응 협력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음

- 상담과 심리치료, 수사 동행과 법률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 중임



[그림 2-2]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 체계

대전지역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성역할 고정관념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태도
3.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 경험
4.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과 대응
5. 소결

3장 대전지역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조사 진행 과정과 방법은 다음 [표 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1] 조사 방법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휴학생과 졸업유예자 포함
조사 방식	• 온라인 플랫폼(Moaform.com) 활용
조사자 모집 및 참여 방법	• 각 대학 학생상담센터 공문 발송을 통한 공개 홍보 • 개별 학과 대상 홍보 • 개인별 눈덩이 표집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5일 ~ 9월 4일 • 총 11일
조사 참여 결과	• 총 응답자: 1,622명 • 오류 검증을 거쳐 무응답(70개), 0-4번 모순된 응답(2개), 모순된 중복응답(25개), 결측치(연령 3개)등 100명 제외 • 최종 분석 대상자 1,522명 - 여성 986명(64.8%), 남성 536명(35.2%)
통계 분석 방법	• SPSS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활용, 기술통계분석

2) 주요 조사 내용

○ 여성폭력 실태조사, 각 지자체의 젠더폭력,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시한 폭력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2]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내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동거인(혼자, 부모, 형제자매, 애인, 배우자, 친구 등) 여부 • 연애·썸·짝사랑 경험 여부
성역할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5개 문항
데이트 폭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한 관계 형성 과정(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 8개 문항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관련 행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직접 ‘한 행위’ (통제, 언어, 신체, 경제, 성, 스토킹 영역별) •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 행위’ (통제, 언어, 신체, 경제, 성, 스토킹 영역별) • 응답자가 목격하거나 들은 타인의 폭력 행위 사례 (통제, 언어, 신체, 경제, 성, 스토킹 영역별) • 규정된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
데이트 폭력 피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피해 이후 대응 방법 • 폭력 피해 이후 무대응 이유 • 폭력 피해 이후 경험한 어려움 • 2차 피해 경험
데이트 폭력 정책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 폭력 정책 인지도 • 데이트 폭력 지원기관 인지도 • 데이트 폭력 지원기관 이용 여부
데이트 폭력 정책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 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요구 •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요구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본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의 유효한 응답은 1,522건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여성이 64.8%, 남성이 35.2%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음
 - 응답자가 함께 사는 동거인은 ‘부모’인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41.9%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형제자매’(24.4%), 친구(6.9%), 애인(1.4%) 순의 분포를 보임

- 연애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이고, 썸 경험은 40.7%, 짝사랑 경험은 22.6%임

[표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비율(%)	
전체		1,522	100	
성별	여성	986	64.8	
	남성	536	35.2	
연령	만 18-20세	341	22.4	
	만 21-23세	763	50.1	
	만 24-26세	296	19.5	
	만 27-29세	73	4.8	
	만 30세 이상	49	3.2	
동거 여부		응답 수	비율*	케이스 비율**
	전체	1,885	100.0	123.9
	혼자	637	33.8	41.9
	부모	721	38.2	47.4
	형제자매	371	19.7	24.4
	애인, 사귀는 사람	22	1.2	1.4
	배우자	15	0.8	1.0
	친구 등 지인	105	5.6	6.9
	기타	14	0.7	0.9
연애 경험		응답 수	비율	케이스 비율
	전체	2,248	100.0	147.7
	연애 경험 있음	1,040	46.3	68.3
	썸 경험 있음	620	27.6	40.7
	짝사랑 경험 있음	344	15.3	22.6
	해당없음	244	10.9	16.0

* 다중응답 처리에서 비율(퍼센트)은 응답 총계를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을 계산한 것

** 다중응답 처리에서 케이스 비율(케이스 퍼센트)은 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 대비 응답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한 것

2. 성역할 고정관념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태도

1) 성역할 고정관념

-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대(sex roles)에 대한 오래되고 전형적인 견해로, 성별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드러냄
-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구분해 응답하게 함
- 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4]와 같음

[표 3-4]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 결과

(단위: 점)

구분	전체	성별		t(p)
		남성	여성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고,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2.82	3.31	2.56	12.350***
여자가 성적 지식이 많거나 너무 적극적이면 보기 안좋다	2.20	2.42	2.09	5.718***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적 능력을 본다	2.63	3.03	2.42	9.835***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2.45	2.63	2.36	4.356***
계	2.53	2.85	2.36	10.513***

* $p < 0.05$, ** $p < 0.01$, *** $p < 0.001$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여학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은 평균 2.53점인 중간(3점) 이하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2.85점으로 여학생 2.36점보다 높았으며 모든 문항에서 남성의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의 인식 차이가 큰 문항은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함'(남성 3.31점, 여성 2.56점)과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 능력을 봄'(남자 3.03점, 여자 2.42점)으로 나타남

2)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

- 친밀한 관계에서 통제와 억압, 갈등 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신체 폭력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 보고자 함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고 대응하는 개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와 관련 상황 예시를 참고함

[표 3-5]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 분	전체	성별		t(p)
		남성	여성	
사랑하는 관계에서 때로는 터프하고 강제적인 것도 낭만적이다	2.39	2.67	2.25	6.007***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싸움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다	2.75	3.05	2.58	7.446***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고 대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96	2.15	1.85	5.612***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하는 것은 연인 간 자연스러운 일이다	2.26	2.48	2.14	5.692***

구 분	전체	성별		t(p)
		남성	여성	
연인 간 일상의 일정과 누구와 만나는지 등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2.91	2.96	2.89	1.199
기분이 나쁘면 애인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풀이를 할 수도 있다	1.80	1.88	1.76	2.426
애인이 성관계를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응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다	2.07	2.38	1.90	8.454***
스킨십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렵다	2.44	2.62	2.34	4.382***

* $p < 0.05$, ** $p < 0.01$, *** $p < 0.00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태도, 남학생이 더 폭력 수용적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임
 - 고전적 연애 시작 방식(계속 만남 요구하기)이나, 친밀한 타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기분 나쁘면 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풀이를 할 수도 있다’(1.80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해도 계속 대시할 필요가 있다’(1.96점)경우도 낮은 동의 수준을 보임

[표 3-6] 친밀한 관계 내 ‘안전이별’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 분	전체	성별		t(p)
		남성	여성	
이별할 때에는 빨리 헤어지기보다 물리적, 정신적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69	3.55	3.76	-3.439***

* $p < 0.05$, ** $p < 0.01$, *** $p < 0.001$

□ **여학생이 안전이별에 대한 필요성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음**

- ‘안전이별’ 필요 정도를 묻는 ‘이별할 때에 빨리 헤어지기보다 안전하게 이별하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평균 3.69점으로 가장 높았음
- ‘연인 간 일정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2.91점), ‘사랑하는 사람 간의 싸움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2.75점)는 중간의 동의 수준을 보임
- 성별로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차이(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안전이별’에 관한 동의 수준이 남녀(여성 3.76점, 남성 3.55점)모두 높았지만, 여성의 동의 정도가 남성보다 더 강함
 - 안전이별을 요구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 정리의 원만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추정할 수 있음
 - 여성이 이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대방부터의 보복과 위험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이별 후 폭력에 대한 취약함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남녀 간 동의 수준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애인이 성관계 원할 경우 하고 싶지 않아도 응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다’(여성 1.90점, 남성 2.38점)임
 -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 성적 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추정 가능함
 - 성관계 요구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나 희생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 결정권 해석과 상충할 수 있음
 - 특히 남성이 이러한 사고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 결정권 행사를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스킨십을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2.34점)의 동의 정도가 남성(2.62점)보다 낮게 나타남

- **성역할 고정관념 강할수록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수용적 태도 보임**
 - 성역할 고정관념과 친밀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 행위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정방향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개별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측정함
 - 폭력에 대한 태도 문항 중 “연인 간 일상의 일정과 누구와 만나는지 등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와 ‘안전이별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낮은 상관관계 보임
 - 유의수준은 0.001 수준이었지만, 상관계수 자체는 0.1~0.2 수준이라 낮게 나타남
 - 대부분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수용적 태도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성역할 고정관념 통합 변수와 ‘일상공유’ 및 ‘안전이별’을 제외한 폭력 태도들은 0.5~0.6 사의의 상관계수를 보임
 -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사랑하는 사이에서 터프한 것도 낭만적’, ‘사랑싸움은 사적인 것’, ‘열 번 짝듯 계속 구애하기’ 등의 태도와 높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 보임(상관계수=.683***)

3.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 경험

- 대부분의 응답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노출돼 있음
 - 연애·썸·짝사랑을 경험한 응답자 1,278명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위 경험 여부를 파악함
 - 폭력 유형별로(통제, 언어, 신체, 경제, 성, 스토킹) 응답자가 직접 ‘가한(행한) 행위’와 ‘당한 행위’ 여부를 응답하게 함
 - 1,278명 응답자 중 친밀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그 어떤 유형의 폭력도 가하거나 당한 적도 없는 응답자는 263명(20.5%)임
 - 친밀한 관계 형성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79.5%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 관련 행위에 연루 혹은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음

1)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관련 행위 ‘가한 경험’과 ‘당한 경험’

- 60% 이상의 응답자가 통제 관련 폭력 행위를 해 본 적 있음

[표 3-7]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통제

(단위: 명, %)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나한테 알리도록 함	273 21.4%	83 17.9%	190 23.3%	287 22.5%	77 16.6%	210 25.8%
상대의 SNS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체크 함	409 32.0%	133 28.6%	276 33.9%	440 34.4%	149 32.1%	291 35.7%
상대의 옷차림을 제한함	67 5.2%	40 8.6%	27 3.3%	204 16.0%	25 5.4%	179 22.0%
상대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 공유를 요구함	356 27.9%	99 21.3%	257 31.6%	413 32.3%	124 26.7%	289 35.5%
위 행위들을 한 번도 경험(가해, 피해) 한 적 없음	498 39.0%	206 44.4%	292 35.9%	446 34.9%	184 39.6%	262 32.2%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위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음	780	258	522	832	280	552
	61.0%	55.6%	64.1%	65.1%	60.4%	67.8%
총계	2,383	819	1,564	2,622	839	1,783
	186.5%	176.4%	192.1%	205.2%	180.8%	219.0%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공유를 요구하거나 옷차림을 제한하는 등 통제 행위를 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61%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상대방에게 통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한 통제 행위는 'SNS계정이나 인스타그램 체크'로 전체 응답의 32%였고, '일정 확인 및 공유 요구(27.9%)',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하는 행위'(21.4%) 순으로 나타남
 - 여성(64.1%)이 남성(55.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한 행위로는 남녀 모두 'SNS계정과 인스타그램 체크'(여성 33.9%, 남성 28.6%), '일정 확인 및 공유 요구'(여성 31.6%, 남성 21.3%), '누구와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하는 행위'(여성 23.3%, 남성 17.9%) 순으로 나타남
- 모든 통제 행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대의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여성 3.3%, 남성 8.6%)는 남성의 가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상대로부터 통제를 당한 경우는 전체의 65.1%로 상대방에게 통제를 행한 응답자(61%)보다 통제를 당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67.8%)이 남성(60.4%)보다 피해 응답률 더 높았음
 -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많이 당한 통제 행위로는 'SNS 계정과 인스타그램 체크'(여성 35.7%, 남성 32.1%), '일정 확인 및 공유 요구'(여성 35.5%, 남성 26.7%), '누구와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하는 행위'(여성 25.8%, 남성 16.6%)순임

- 모든 행위에서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상대의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여성 22.0%, 남성 5.4%)에서는 여성의 피해 응답률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높았음

□ 언어폭력은 통제와 스토킹 다음으로 친밀한 관계 내 발생 빈도 높게 나타남

[표 3-8]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언어

(단위: 명, %)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함	74	21	53	165	39	126
	5.8%	4.5%	6.5%	12.9%	8.4%	15.5%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름	35	15	20	121	36	85
	2.7%	3.2%	2.5%	9.5%	7.8%	10.4%
갈등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로 상대의 탓을 함	209	60	149	316	116	200
	16.4%	12.9%	18.3%	24.7%	25.0%	24.6%
아끼는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겁주는 말을 함	23	11	12	33	17	16
	1.8%	2.4%	1.5%	2.6%	3.7%	2.0%
위 행위들을 한 번도 경험(가해, 피해)한 적 없음	973	367	606	786	286	500
	76.1%	79.1%	74.4%	61.5%	61.6%	61.4%
위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음	305	97	208	492	178	314
	23.9%	20.9%	25.6%	38.5%	38.4%	38.6%
총계	1,619	571	1,048	1,913	672	1,241
	126.7%	123.0%	128.8%	149.7%	144.9%	152.5%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에게 말로 모욕감과 겁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언어적 위협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3.9%인 것으로 나타남

- 언어적 위협 행위 중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한 행위는 ‘갈등 시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함’(16.4%)이었고, ‘욕이나 모욕감 주는 말을 함’(5.8%), ‘공포감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2.7%) 순으로 높았음
- ‘아끼는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심한 협박을 하는 경우도 1.8%로 나타남
- 남성의 20.9%, 전체 여성의 25.4%가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보다 상대에게 위협적 말을 한 경험이 높았다고 응답함
 - 여성과 남성 모두 ‘갈등 시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말’(여성 18.3%, 남성 12.9%)이 가장 많았고, ‘욕이나 모욕감 주는 말’(여성 6.5%, 남성 4.5%), ‘공포감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
 -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나’(여성 2.5%, 남성 3.2%), ‘아끼는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겁주는 말을 함’(여성 1.5%, 2.4%)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에게 언어적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8.5%로 언어적 가해 행위를 한 응답자(23.9%)보다 피해를 당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38.6%)과 남성(38.4%)이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언어적 위협은 ‘갈등 시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말’(여성 24.6%, 남성 25.0%)였음
 - 성별 격차가 크게 난 항목은 ‘욕이나 모욕감 주는 말’(여성 15.5%, 남성 8.4%)로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의 2배 정도임
 - ‘공포감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여성 10.4%, 남성 7.8%)도 여성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남

[표 3-9]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신체적 위협

(단위: 명, %)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밀침	114	49	65	215	56	159
	8.9%	10.6%	8.0%	16.8%	12.1%	19.5%
뺨을 때림	16	4	12	29	15	14
	1.3%	0.9%	1.5%	2.3%	3.2%	1.7%
삐거나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림	15	6	9	25	9	16
	1.2%	1.3%	1.1%	2.0%	1.9%	2.0%
다툼 때 물건을 던짐	54	21	33	69	26	43
	4.2%	4.5%	4.1%	5.4%	5.6%	5.3%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해를 끼침	11	3	8	16	7	9
	0.9%	0.6%	1.0%	1.3%	1.5%	1.1%
위 행위들을 한 번도 경험(가해, 피해)한 적 없음	1076	383	693	964	363	601
	84.2%	82.5%	85.1%	75.4%	78.2%	73.8%
위 행위들을 경험한 적 있음	202	81	121	314	101	213
	15.8%	17.5%	14.9%	24.6%	21.8%	26.2%
전체	1,488	547	941	1,632	577	1,055
	116.5%	117.9%	115.7%	127.8%	124.3%	129.6%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상대에게 신체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5.8%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상대에게 가장 많이 행한 신체적 행위는 ‘팔목이나 몸을 밀침’(8.9%)이었고, 그다음으로 ‘다툼 때 물건을 던짐’(4.1%)행위 순임
- 낮은 비율이지만 ‘뺨을 때리거나’(1.3%)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리는 행위’(1.2%) 등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가한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17.5%)이 여성(14.9%)보다 더 많이 상대에게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신체적 가해 행위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팔목이나 몸을 밀침’(여성 8.0%, 남성 10.6%) ‘다툼 때 물건을 던짐’(여성 4.1%, 남성 4.5%) 순이며,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가해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방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4.6%임
 - 가해 경험(15.8%)보다 피해 경험(24.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의 26.2%가 상대방부터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쥐거나 밀침’(19.5%) 행위가 가장 많았고, ‘다툼 때 물건을 던짐’ 행위도 5.3%였음
 - 보다 심한 신체적 피해 경험으로, 상처가 날 정도로 맞거나(2.0%), 뺨을 맞는 (1.7%)행위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21.8%가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26.2%)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임
 -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은 여성과 동일하게 ‘팔목이나 몸을 힘껏 쥐거나 밀침’ 행위(12.1%)지만, 비율은 여성보다 낮음
 - 뺨을 맞거나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피해는 남성(3.2%, 1.5%) 이 여성 (1.7%, 1.1%)보다 약간 높았음

[표 3-10]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경제적 피해

(단위: 명, %)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하는 일(아르바이트, 직장 등)을 그만두게 함	24	13	11	53	12	41
	1.9%	2.8%	1.4%	4.1%	2.6%	5.0%
고가의 선물을 요구	52	20	32	81	42	39
	4.1%	4.3%	3.9%	6.3%	9.1%	4.8%
고가의 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음	12	7	5	36	16	20
	0.9%	1.5%	0.6%	2.8%	3.4%	2.5%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음	20	12	8	49	17	32
	1.6%	2.6%	1.0%	3.8%	3.7%	3.9%
위 행위들을 한 번도 경험 (가해, 피해)한 적 없음	1174	416	758	1075	385	690
	91.9%	89.7%	93.1%	84.1%	83.0%	84.8%
위 행위들을 경험한 적 있음	104	48	56	203	79	124
	8.1%	10.3%	6.9%	15.9%	17.0%	15.2%
총계	1,386	516	870	1,497	551	946
	108.5%	111.2%	106.9%	117.0%	118.8%	116.2%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8.1%임
 - 전체 응답자들은 ‘고가의 선물을 요구’(4.1%) 행위를 가장 많이 하였고,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함’(1.9%),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 (1.6%)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제적 가해 행위 응답률(8.1%)이 여성(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의 가해 경험 수준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고가의 선물 요구’ (남성 4.1%, 여성 3.9%),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함’(남성 2.8%, 여성 1.4%), 돈을 빌리지 않고 갚지 않음’(남성 2.6%, 1.0%)순이었고 모든 문항에서 남성의 가해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방부터 경제적 피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의 15.9%로 경제적 가해 행위를 한 비율(8.1%)보다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경제적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 경험 비율은 15.2%로 남성(1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가해 경험도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피해 경험도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임

- 여성은 '일(아르바이트, 직장)을 그만 두게 하는' 피해 응답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함'(4.8%), '돈을 빌리지 않고 갚지 않음'(3.9%)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남성은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함'(9.1%)이 가장 높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3.7%), '고가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3.4%) 순으로 나타남

[표 3-1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성적 위협

(단위: 명, %)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원하지 않는데 몸(손, 머리 등 신체 일부)을 만짐	178	76	102	264	76	188
	13.9%	16.4%	12.5%	20.7%	16.4%	23.1%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함	55	37	18	111	29	82
	4.3%	8.0%	2.2%	8.7%	6.3%	10.1%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함	19	15	4	59	15	44
	1.5%	3.2%	0.5%	4.6%	3.2%	5.4%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함	6	2	4	18	3	15
	0.5%	0.4%	0.5%	1.4%	0.6%	1.8%
본인(상대방)이 들어간 촬영물을 지인이나 주변인과 공유함(단톡방 올리기 등)	10	2	8	11	5	6
	0.8%	0.4%	1.0%	0.9%	1.1%	0.7%
요구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냄	19	12	7	29	9	20
	1.5%	2.6%	0.9%	2.3%	1.9%	2.5%
위 행위들을 한 번도 경험(가해, 피해)한 적 없음	1019	342	677	894	350	544
	79.7%	73.7%	83.1%	70.0%	75.4%	66.8%
위 행위들을 경험한 적 있음	259	122	137	384	114	270
	20.3%	26.3%	16.8%	30.0%	25.6%	33.2%
총계	1,565	608	957	1,170	601	1,169
	122.5%	131.0%	117.5%	138.6%	130.5%	143.6%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전체 응답자의 20.3%는 상대에게 성적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행한 성적 위협 행위는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13.9%)행위였으며, 그 다음은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함’(4.3%)순임
 - 낮은 비율이지만 ‘원치 않는 섹스를 강요’(1.5%), ‘성적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보냄’(1.5%)행위 등 성폭력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경험하고도 있음
- 성별로는 남성(26.3%)이 여성(16.8%)보다 가해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한 행위는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짐’(여성 12.5%, 남성 16.4%)이고, ‘내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함’(여성 2.2%, 남성 8.0%)순으로 나타남
- 상대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0.0%로 성적 폭력을 가한 응답자(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33.2%로 남성(24.6%)보다 높은 피해 경험 비율을 보임
 -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23.1%)을 당한 행위가 가장 많았고,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당하거나 (10.1%), 원치 않는데 섹스를 강요당한 경우는 5.4%로 나타남
 - 남성도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16.4%)을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당하거나(6.3%), 원치 않는데 섹스를 강요당한 경우가 3.2% 순으로 나타났음
 -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스토킹은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빈도 보인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위

[표 3-12]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사 또는 피해 여부: 스토킹

(단위: 명, %)

문항	가한 경험			당한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SNS 등을 이용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옴	211	85	126	272	87	185
	16.5%	18.3%	15.5%	21.3%	18.8%	22.7%
원치 않는데 계속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막아섬	61	28	33	122	34	88
	4.8%	6.0%	4.1%	9.5%	7.3%	10.8%
집,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52	22	30	125	36	89
	4.1%	4.7%	3.7%	9.8%	7.8%	10.9%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물건을 둠	34	7	27	49	12	37
	2.7%	1.5%	3.3%	3.8%	2.6%	4.5%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옴	41	18	23	133	27	106
	3.2%	3.9%	2.8%	10.4%	5.8%	13.0%
위 행위들을 한 번도 경험(가해, 피해)한 적 없음	905	315	590	784	297	487
	70.8%	67.9%	72.5%	61.3%	64.0%	59.8%
위 행위들을 경험한 적 있음	373	149	224	494	167	327
	29.2%	32.1%	27.5%	38.7%	36.0%	40.2%
총계	1,677	624	1,053	1,979	660	1,319
	131.3%	134.4%	129.4%	154.8%	142.3%	161.9%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스토킹을 가해 본 응답자는 전체의 29.2%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이 스토킹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행한 스토킹 행위는 ‘SNS 등으로 지속적 연락’(16.5%) 이였고, ‘원치 않는데 계속 접근 따라다님’(4.8%),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 봄’(4.1%) 순으로 나타남

- 남성(32.1%)이 여성(27.5%)보다 가해해 본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스토킹 행위에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음
 - ‘직간접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의 경우는 여성(3.3%)이 남성(1.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스토킹을 당한 응답률은 전체의 38.7%로 상대에게 스토킹을 행한 응답자 비율(29.2%)보다 높게 나타남
 -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행위는 ‘SNS 을 활용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함’(21.3%)이고, 그다음이 ‘허락 없이 집을 찾아오는 행위’가 10.4%로 높았음
 - 전체 여성(40.2%)의 스토킹 피해율은 남성(36.0%)보다 높게 나타남
 - 남녀 간 피해 경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행위는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행위’(여성 13.0%, 남성 5.8%)로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의 2배 이상임

2) 타인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간접 경험

-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인들의 폭력 경험 사례에 관해 응답하도록 함
 - 본 설문을 통해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 내 폭력 발생 실태를 유추할 수 있음
 - 문항은 통제, 언어, 신체, 경제, 성, 스토킹 등 위 직접 경험 영역과 동일하게 구성했으나, 문항을 줄여 간소화함
 - 본 문항은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을 답하는 것이므로, 친밀한 관계 형성(연애, 썸, 짝사랑)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답할 수 있음
- 타인의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응답자를 폭력 유형별로 1과 2영역으로 나눠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13] 타인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간접 경험1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통제	연인의 일정과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고 공유하는 행위	빈도	197	498	695
		비율	36.8%	50.5%	45.7%
	상대의 SNS 계정 등을 체크하는 행위	빈도	244	506	750
		비율	45.5%	51.3%	49.3%
휴대폰 암호를 물어달라거나 보여달라고 조르는 행위	빈도	159	367	526	
	비율	29.7%	37.2%	34.6%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음	빈도	155	222	377	
	비율	28.9%	22.5%	24.8%	
언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	빈도	125	238	363
		비율	23.3%	24.1%	23.9%
	갈등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상대를 탓을 하는 행위	빈도	204	421	625
		비율	38.1%	42.7%	41.1%
위 행위들을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음	빈도	251	435	686	
	비율	46.8%	44.1%	45.1%	
신체	뼈거나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리는 행위	빈도	94	180	274
		비율	17.5%	18.3%	18.0%
	다툼 때 물건을 던지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해를 가하는 행위	빈도	107	193	300
		비율	20.0%	19.6%	19.7%
위 행위들을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음	빈도	352	660	1012	
	비율	65.7%	66.9%	66.5%	
경제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	빈도	104	214	318
		비율	19.4%	21.7%	20.9%
	상대방 소유의 고가물건을 쓰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빈도	114	181	295
		비율	21.3%	18.4%	19.4%
위 행위들을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음	빈도	343	634	977	
	비율	64.0%	64.3%	64.2%	
총계		빈도	2,449	4,749	7,198
		비율	457.0%	481.6%	473.2%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타인들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은 직접 겪은 것보다 높게 나타남

- 타인의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응답자는 전체의 75.2%로, 실제 통제를 하거나(61%) 당한 경우(65.1%)보다 더 높았음
 - 가장 많이 목격하거나 들은 통제 행위는 '상대 SNS계정 체크'(49.3%가 가장 높았고 '연인 일정 공유'(45.7%) 행위 등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 통제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77.5%)이 남성(71.1%)보다 더 많이 목격하거나 들음
- 언어적 위협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자는 전체의 54.9%로 실제 언어적 위협을 한 응답자(23.9%)와 피해 경험 응답자(38.5%)보다 높게 나타남
 - 가장 많이 듣거나 본 행위는 '갈등 시 너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함'(45.1%)이며, '공포감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23.9%)임
 - 성별로 여성(55.9%)이 남성(53.2%)보다 언어적 위협 상황을 많이 목격하거나 들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3.5%였고, 실제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경험(15.8%)와 피해경험(24.6%)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심한 폭력인 '다툼 때 위험한 도구로 해를 가하는 행위'(19.7%)와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리는 행위'(18.0%)가 응답자 전체의 1/5 수준임
 - 타인의 신체 폭력 피해가 신체 가해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각 1.3%, 2.0%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34.3%) 여성(33.1%)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목격하거나 들음
-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5.8%가 목격하거나 듣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가해 경험 응답자(8.1%)와 피해 경험자(15.9%)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36.0%)과 여성(35.7%)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목격하거나 들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 타인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간접 경험2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성	원하지 않는데 몸(머리, 손 등 신체 일부)을 만지는 행위	빈도	152	319	471
		비율	28.4%	32.4%	30.9%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하는 행위	빈도	57	117	174
		비율	10.6%	11.9%	11.4%
	연인 사이 촬영물을 지인이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행위(단톡방 올리기 등)	빈도	41	84	125
		비율	7.6%	8.5%	8.2%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빈도	319	567	886
		비율	59.5%	57.5%	58.2%
스토킹	SNS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빈도	146	330	476
		비율	27.2%	33.5%	31.3%
	원치 않는데 계속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빈도	109	240	349
		비율	20.3%	24.3%	22.9%
	집,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빈도	110	241	351
		비율	20.5%	24.4%	23.1%
	상대의 집에 찾아가거나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	빈도	68	163	231
		비율	12.7%	16.5%	15.2%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빈도	250	419	669
		비율	46.6%	42.5%	44.0%
	총계	빈도	1,252	2,480	3,732
		비율	233.4%	251.5%	245.2%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 위협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응답자는 전체의 41.8%였고, 실제 성적 가해 응답자(20.3%)와 피해 경험 응답자(30.0%)와 차이를 보임
 - 문항별로는 '원치 않는데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30.9%
 -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행위'와 '촬영물을 주변과 공유하는 행위'는 각각 11.4%, 8.2%가 목격하거나 들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42.4%)과 남성(40.5%)이 비슷한 수준으로 목격하거나 들은 것으로 나타남
- 스토킹 행위를 보거나 들은 응답자는 전체의 56.0%로 실제 스토킹을 당한 경험(38.7%)와 한 경험(29.2%) 응답자 비율과 큰 차이를 보임
 - 스토킹의 경우 여성(57.7%)이 남성(53.4%)보다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SNS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행위'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일상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23.1%), 원치 않는데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22.9%)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4%정도 높게 응답함

4.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과 대응

1)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

- 설문 문항에 ‘폭력’이란 단어를 써서 ‘데이트 폭력’ 피해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응답하도록 함
 - “귀하는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애인, 전애인, 썸타는 사이, 호감을 표현한 상대 등)으로부터 폭력(신체, 언어, 통제, 성, 스토킹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로 질문함
 - 이전 문항에서는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본 문항에서 처음으로 폭력을 언급하고 행위 경험 여부를 질문함
- 대부분의 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데이트 폭력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7.8%만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앞서 다양한 유형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 여부를 물었을 때, ‘통제’의 경우 60% 이상, ‘스토킹’도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당한 경험이 있었으나,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표 3-15] 데이트 폭력 피해 인정 여부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512	95.5	892	90.5	1404	92.2
있음	24	4.5	94	9.5	118	7.8
전체	536	100.0	986	100.0	1,522	100.0

- 성별로는 여성의 9.5%, 남성의 4.5%만이 폭력 피해 경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음

2)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 응답자들은 여러 유형의 폭력 관련 행위들을 가했거나 당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들이 그것을 폭력으로 인정,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앞서 폭력 관련 피해 경험 중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85.8%, 통제 피해 경험자들의 83%가 본 문항에서는 ‘폭력’이라고 답하지 않고 있어, 폭력 피해를 인정 혹은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앞서 신체 폭력 피해 경험자의 78.5%, 스토킹 피해 경험자의 76.9%, 언어폭력 피해 경험자의 75.4%가 폭력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폭력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응답자의 폭력 피해 미인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 피해, 상대를 통제하는 피해 경험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만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폭력 유형(통제, 언어, 신체, 경제, 성, 스토킹)에 따른 피해 경험과 폭력 피해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16]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통제

(단위: 명, %)

구 분		폭력 피해 인지 (인정)			전체
		없음	있음		
통제 피해 경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요구함	빈도 (%)	225 (78.4%)	62 (21.6%)	287
	나의 SNS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체크함	빈도 (%)	386 (81.7%)	54 (12.3%)	440
	나의 옷차림을 제한함	빈도 (%)	154 (75.5%)	50 (24.5%)	204
	나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공유를 요구함	빈도 (%)	355 (85.9%)	58 (14.1%)	413

- '옷차림 제한을 당한 적 있다'고 앞서 응답했으나, '폭력'이란 단어를 써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들 중 16.7%만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인지함
- '일정을 확인 및 공유를 요구'를 당한 응답자의 85.9%, 'SNS나 인스타그램을 체크'당한 응답자의 81.7%,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요구'당한 응답자의 78.4%가 폭력 피해로 인지하지 못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연인 간 상호 통제 행위를 (실제 제도나 법률과는 달리)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강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17]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언어

(단위: 명, %)

구 분		폭력피해 인지		전체	
		없음	있음		
언어 위협 피해 경험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함	빈도 (%)	113 (68.4%)	52 (31.6%)	165
	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름	빈도 (%)	78 (64.5%)	43 (35.5%)	121
	갈등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내 탓을 함	빈도 (%)	266 (84.2%)	50 (15.8%)	316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겁주는 말을 함	빈도 (%)	22 (66.7%)	11 (33.3%)	33

- 언어폭력 피해 유경험 응답자 중 75.4%가 폭력피해로 인지하지 못하고 24.6%만이 폭력으로 인지함
- '갈등 시 너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경험한 응답자의 15.8%만이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욕이나 모욕감을 주는 말'(31.6%), '공포심을 주는 소리지름'(35.5%)를 당한 경우에는 폭력으로 인정한 경우가 갈등 상황 시 폭언 보다는 높았음

-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겁주는 말’을 들은 응답자의 33.3%는 폭력을 인정하고 있음

[표 3-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신체적 위해

(단위: 명, %)

구 분	폭력피해 인지		전체
	없음	있음	
신체 피해 경험	나의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밀침	빈도 (%) 173 (80.4)	42 (19.6%) 215 (100.0)
	나의 뺨을 때림	빈도 (%) 21 (72.4%)	8 (27.6%) 29 (100.0)
	내가 빠거나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림	빈도 (%) 14 (56.0%)	11 (44%) 25 (100.0)
	다툼 때 나에게 물건을 던짐	빈도 (%) 55 (79.7%)	14 (20.3%) 69 (100.0)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나에게 해를 끼침	빈도 (%) 15 (93.7%)	1 (6.3%) 16 (100.0)

- 신체 폭력 피해 경험자들 중 78.5%가 폭력피해로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심각한 폭력행위인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해를 끼치는 행위’를 겪은 응답자의 93.7%도 자신은 폭력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내 팔목이나 몸을 움켜쥐거나 밀치는 행위’를 당한 응답자의 80.4%,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79.7%), 뺨을 때리는 행위를 경험한 응답자의 72.4%도 자신이 폭력피해 경험을 미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폭력피해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빠거나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림’을 당한 경우로, 절대 응답자 수는 적지만, 44%가 폭력으로 인지하였음
- 외적으로 폭력의 상흔이 남아야 ‘폭력’이란 단어로 상황과 피해를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9]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경제적 피해

(단위: 명, %)

구 분	폭력피해 인지			전체	
	없음	있음			
경제적 피해 경험	내가 하는 일(아르바이트, 직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 두게 함	빈도 (%)	42 (79.2%)	11 (20.8%)	53
	나에게 고가의 선물을 달라고 함	빈도 (%)	70 (86.4%)	11 (13.4%)	81
	내 소유의 고가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음	빈도 (%)	35 (97.2%)	1 (2.8%)	36
	나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음	빈도 (%)	41 (83.7%)	8 (16.3%)	49

-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85.8%가 자신의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 경험 유형 중 가장 높은 폭력 미인지 수준을 보임
-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게 함’이 폭력 인지율이 가장 높은 문항임
- ‘나의 고가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경험한 97.2%가 폭력으로 인지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가의 선물을 요구’(86.7%),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는 83.7%가 폭력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성적 피해

(단위: 명, %)

구 분	폭력피해 인지			전체	
	없음	있음			
성적 피해 경험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손, 머리 등 신체 일부)을 만짐	빈도 (%)	217 (82.2%)	47 (17.8%)	264
	내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함	빈도 (%)	87 (78.4%)	24 (21.6%)	111

구 분		폭력피해 인지		전체	
		없음	있음		
성적 피해 경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함	빈도 (%)	31 (52.5%)	28 (47.5%)	59
	나의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함	빈도 (%)	6 (33.3%)	12 (66.7%)	18
	내가 나온 촬영물을 지인이나 주변인과 공유함(단톡방 올리기 등)	빈도 (%)	9 (81.8%)	2 (18.2%)	11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냄	빈도 (%)	18 (62.0%)	11 (38.0%)	29

- 성적 피해는 다른 유형의 데이트 폭력 행위에 비해 인지율이 높은 편임
- 성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24.4%가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함
- ‘신체일부 혹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섹스를 강요하는 행위’가 특히 폭력으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지는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82.2%는 자신이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과 신체적 접촉에도 당사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적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요구하지 않는데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경험자의 81.8%가 ‘원하지 않는 성적내용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경험자의 62.0%가 폭력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피해경험이 심각한 폭력적 행위임에도 폭력을 미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해 인지와 경험: 스토킹

(단위: 명, %)

구 분	폭력피해 인지			전체	
	없음	있음			
스토킹 피해 경험	SNS 등을 이용하여 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음	빈도 (%)	217 (80.0%)	55 (20.0%)	272
	원치 않는데 계속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막아섬	빈도 (%)	98 (80.3%)	24 (19.7%)	122
	집,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빈도 (%)	94 (75.2%)	31 (24.8%)	125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내게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물건을 둠	빈도 (%)	34 (59.4%)	15 (30.6%)	49
	내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옴	빈도 (%)	96 (72.2%)	37 (27.8%)	133

- 앞서 스토킹 행위를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23.1%만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함
- 여러 항목 중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경험한 응답자의 59.4%가 폭력피해를 미 인지하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는 경험’을 한 응답자의 80.0%가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원치 않는데 계속 따라다니거나 막아섬 행위’ 경험자의 75.2%, ‘허락없이 집에 찾아오는’ 경험자의 72.2%가 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3) 데이트 폭력 피해 대응 실태

-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8명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이후 대응 방법, 무대응의 이유, 폭력피해 이후의 어려움, 2차 피해 경험에 관해 응답하게 함

□ 피해 대응 방법

- 데이트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는 이별을 요구하는 경우 (56.8%)가 가장 높았고, 친구 및 주변 지인과 의논했다(40.7%), 그냥 넘어갔다(28.8%), 조용히 연락을 끊었다(26.3%) 순으로 나타남

[표 3-22] 폭력 피해 대응 방법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이별을 요구함	빈도	11	56	67
	비율	45.8%	59.6%	56.8%
친구와 주변 지인과 의논함	빈도	10	38	48
	비율	41.7%	40.4%	40.7%
그냥 넘어감	빈도	10	24	34
	비율	41.7%	25.4%	28.8%
조용히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함	빈도	6	25	31
	비율	25.0%	26.6%	26.3%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함	빈도	4	26	30
	비율	16.7%	27.7%	25.4%
가족들과 의논함	빈도	1	8	9
	비율	4.2%	8.5%	7.6%
학교 내 상담기관과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함	빈도	1	6	7
	비율	4.2%	6.4%	5.9%
경찰에 신고함	빈도	2	4	6
	비율	8.3%	4.3%	5.1%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함	빈도	2	2	4
	비율	8.3%	2.1%	3.4%
상대방과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함	빈도	1	1	2
	비율	4.2%	1.1%	1.7%
기타	빈도	1	0	1
	비율	4.2%	0.0%	0.8%
총계	빈도	49	190	239
	비율	204.3%	202.1%	202.5%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여성(59.6%)이 남성(45.8%)보다 이별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고 '상대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한 경우도 여성(27.7%)이 남성(16.7%)보다 높음
- 남성은 '그냥 넘어감'(남성 41.5%, 여성 25.4%) 응답 비율이 높았고,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남성 8.3%, 여성 4.3%)와 '전문 상담기관에 요청'(남성 8.3%, 여성 2.1%)도 남성이 높았음.

□ 폭력 피해에 대한 무대응 이유

- 데이트 폭력 피해 직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47.1%로 가장 높았음
- '특별한 대응 할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35.3%), '상대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32.4%),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26.5%), '주변에 소문나는 것이 창피해서'(26.5%)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대처 방법을 몰라서'(58.3%)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상대로부터의 보복'(4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남성은 '특별히 대응할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60.0%)가 가장 높았고, '상대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30.0%) 응답도 비율상 높아, 남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민감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에게 높았던 '상대로부터의 보복' 이유는 10.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폭력피해 이후 취약성의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표 3-23] 폭력 피해 무대응 이유

(단위: 명, %)

항 목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빈도	2	14	16
	비율	20.0%	58.3%	47.1%
특별한 대응을 할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	빈도	6	6	12
	비율	60.0%	25.0%	35.3%

항 목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상대가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보복할까 두려워서	빈도	1	10	11
	비율	10.0%	41.7%	32.4%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빈도	2	7	9
	비율	20.0%	29.2%	26.5%
주변에 소문나고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빈도	2	7	9
	비율	20.0%	29.2%	26.5%
상대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빈도	3	4	7
	비율	30.0%	16.7%	20.6%
기타	빈도	1	3	4
	비율	10.0%	12.5%	11.8%
총계	빈도	17	51	68
	비율	170.0%	212.6%	200.2%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겪은 어려움

- 데이트 폭력을 겪은 이후 응답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음
- 데이트 폭력 피해이후 겪은 어려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의 지장’(40.7%), ‘죄책감과 수치심’(30.5%), ‘대인관계 회피, 불신감’(28.8%) 순으로 나타남

[표 3-24] 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겪은 어려움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 (우울감, 불면, 공황장애 등)	빈도	7	46	53
	비율	29.2%	48.9%	44.9%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	빈도	7	41	48
	비율	29.2%	43.6%	40.7%

구 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낌	빈도	5	31	36
	비율	20.8%	33.0%	30.5%
대인관계 회피, 불신감 등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빈도	6	28	34
	비율	25.0%	29.8%	28.8%
학업에 집중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움	빈도	5	27	32
	비율	20.8%	28.7%	27.1%
어려움 없었음	빈도	7	11	18
	비율	29.2%	11.7%	15.3%
경제적 손실을 입음	빈도	2	10	12
	비율	8.3%	10.6%	10.2%
알코올, 약물 등에 의존함	빈도	3	3	6
	비율	12.5%	3.2%	5.1%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음	빈도	1	3	4
	비율	4.2%	3.2%	3.4%
기타	빈도	2	2	4
	비율	8.3%	2.1%	3.4%
총계	빈도	45	202	247
	비율	187.5%	214.8%	209.4%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여성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48.9%로 피해자의 절반이 경험하였고 ‘일상생활 지장’(43.6%), 죄책감과 수치심(33.0%)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29.2%), ‘일상생활 지장’(29.2%), 대인관계 회피(25.0%)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경험 비율이 여성보다 낮은 편임
-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9.2%로 여성(11.7%)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 이후 후유증은 성별로 다르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임

- 성폭력 피해 후 2차 피해로 나타나는 전형적 사례들을 활용하여 2차 피해 경험 여부를 질문함

[표 3-25] 데이트 폭력 피해 후 2차 피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경험한 일 없음	빈도	5	50	55
	비율	20.8%	53.2%	46.6%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임	빈도	9	16	25
	비율	37.5%	17.0%	21.2%
나의 연애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 소문이 유포됨	빈도	7	18	25
	비율	29.2%	19.1%	21.2%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함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미리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등)	빈도	7	17	24
	비율	29.2%	18.1%	20.3%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를 비난하거나 행위자를 두둔함	빈도	3	7	10
	비율	12.5%	7.4%	8.5%
행위자가 피해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압박함	빈도	1	8	9
	비율	4.2%	8.5%	7.6%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처우 또는 인신 공격을 함	빈도	2	4	6
	비율	8.3%	4.3%	5.1%
집단 따돌림, 폭언, 폭행 등을 겪음 (SNS 등을 이용한 행위 포함)	빈도	1	4	5
	비율	4.2%	4.3%	4.2%
기타	빈도	1	2	3
	비율	4.2%	2.1%	2.5%
(처벌 과정에서)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됨	빈도	0	2	2
	비율	0.0%	2.1%	1.7%
총계	빈도	36	128	164
	비율	150.1%	136.1%	138.9%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데이트 폭력 이후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전체 비율은 46.6% 이고, 여성의 53.2%, 남성의 20.8%가 데이트 폭력을 입었다고 인지하고 인정했으나, 2차 피해로 불만한 사례들은 경험한 바 없다고 답함
- 2차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대수롭지 않은 태도’(21.2%),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 유포’(21.2%) 등으로 경험함
- 여성의 경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 유포’(19.1%), ‘본인 탓이라고 함’(18.1%)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은 ‘본인 탓이라고 함’을 경험한 응답자가 37.5%로 가장 높았고,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 유포’(29.2%), ‘본인 탓이라고 함’(29.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4)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수요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인지

-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 2023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중 시민이 직접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인지 여부를 질문함
 - 최근 많이 알려진 일상생활 내 안전 강화 프로그램 혹은 사업들을 제시하고 인지 여부 파악함

[표 3-26] 대전광역시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빈도	211	450	661
	비율	39.4%	45.6%	43.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신고, 삭제 등)	빈도	228	404	632
	비율	42.5%	41.0%	41.5%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플랫폼 구축	빈도	165	293	458
	비율	30.8%	29.7%	30.1%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빈도	110	230	340
	비율	20.5%	23.3%	22.3%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빈도	59	112	171
	비율	11.0%	11.4%	11.2%
모른다	빈도	149	244	393
	비율	27.8%	24.7%	25.8%
총계	빈도	922	1,733	2,655
	비율	172.0%	175.7%	174.3%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43.4%)이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41.5%),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플랫폼 구축’(30.1%) 순으로 인지도 나타남
- 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5.8%로, 응답자의 1/4이 지역의 정책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점검’(45.6%)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남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서비스’(42.5%)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녀 비슷한 비율로 인지함

[표 3-27] 대전광역시 데이트 폭력 대응 지원기관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경찰서(112)	빈도	420	751	1171
	비율	78.4%	76.2%	76.9%
여성긴급전화 1366	빈도	203	565	768
	비율	37.9%	57.3%	50.5%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성폭력 상담소	빈도	135	321	456
	비율	25.2%	32.6%	30.0%
학교내 성폭력 및 인권상담 지원기관	빈도	104	186	290
	비율	19.4%	18.9%	19.1%
해바라기 센터	빈도	73	204	277
	비율	13.6%	20.7%	18.2%
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빈도	58	109	167
	비율	10.8%	11.1%	11.0%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빈도	32	93	125
	비율	6.0%	9.4%	8.2%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함'	빈도	18	48	66
	비율	3.4%	4.9%	4.3%
모른다	빈도	33	63	96
	비율	6.2%	6.4%	6.3%
총계	빈도	1,076	2,340	3,416
	비율	200.9%	237.5%	224.5%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데이트 폭력 피해 대응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경찰서(112)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50.5%), 성폭력 상담소(30.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은 경찰서(76.2%), 여성긴급전화 1366(57.3%), 성폭력상담소 (32.6%) 순으로 인지하였고, 남성은 경찰서(78.4%), 여성긴급전화1366 (37.9%), 성폭력상담소(25.2%)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경찰서 인지 비율은 가장 높았지만 남성은 여성긴급 전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전문기관에 대한 인지율이 여성보다 낮았음
-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은 20%의 차이를 보임

[표 3-28] 대전광역시 데이트 폭력 대응 지원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경찰서(112)	빈도	42	72	114
	비율	7.8%	7.3%	7.5%
여성긴급전화 1366	빈도	25	35	60
	비율	4.7%	3.5%	3.9%
성폭력 상담소	빈도	12	16	28
	비율	2.2%	1.6%	1.8%
해바라기 센터	빈도	9	16	25
	비율	1.7%	1.6%	1.6%
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빈도	6	13	19
	비율	1.1%	1.3%	1.2%
학교내 성폭력 및 인권상담 지원기관	빈도	4	14	18
	비율	0.7%	1.4%	1.2%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빈도	2	8	10
	비율	0.4%	0.8%	0.7%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함'	빈도	0	3	3
	비율	0.0%	0.3%	0.2%
사용해본 적 없다	빈도	454	865	1319
	비율	84.7%	87.7%	86.7%
총계	빈도	554	1,042	1,596
	비율	103.3%	105.5%	104.8%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데이트 폭력 대응 지원기관의 실제 이용한 경험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으로는 경찰서(112)(7.5%)였고, 그 다음이 여성긴급전화 1366 (3.9%), 성폭력상담소(1.8%)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경찰서(7.3%, 7.8%)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 3.5%, 남성 4.7%), 성폭력상담소(여성 1.6%, 남성 2.2%) 순으로 이용하였으며, 세 기관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이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수요

[표 3-29]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수요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가해자 격리 및 처벌 강화	빈도	253	575	828
	비율	47.2%	58.3%	54.4%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	빈도	235	554	789
	비율	43.8%	56.2%	51.8%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빈도	191	459	650
	비율	35.6%	46.6%	42.7%
피해자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원 강화	빈도	154	385	539
	비율	28.7%	39.0%	35.4%
가정폭력, 성폭력과 함께 공동대응팀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빈도	158	349	507
	비율	29.5%	35.4%	33.3%
대전시 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빈도	140	292	432
	비율	26.1%	29.6%	28.4%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정비	빈도	140	288	428
	비율	26.1%	29.2%	28.1%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빈도	123	287	410
	비율	22.9%	29.1%	26.9%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재정비	빈도	93	243	336
	비율	17.4%	24.6%	22.1%
총계	빈도	1,487	3,432	4,919
	비율	277.3%	348.0%	323.1%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데이트 폭력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격리 및 처벌강화’ (5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특별법 제정’(51.8%), ‘2차 피해 예방 지원’(42.7%) 순으로 요구함

- 여성과 남성 모두 필요로 하는 정책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지만 요구 비율은 여성이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높았음
- 특히 여성과 남성 요구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특별법 제정’(남성 43.8%, 여성 56.2%)이었고, ‘피해자 안전보호 서비스 지원 강화’, ‘가해자 격리 및 처벌강화’, ‘2차피해지원 강화’ 등으로 나타남

[표 3-30]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요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폭력 상황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 강화	빈도	205	461	666
	비율	38.2%	46.8%	43.8%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건처리 관련자 예방 교육 실시	빈도	213	438	651
	비율	39.7%	44.4%	42.8%
친밀한 사이 폭력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개선	빈도	203	405	608
	비율	37.9%	41.1%	39.9%
상대 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 인식 개선	빈도	188	378	566
	비율	35.1%	38.3%	37.2%
폭력 피해 대응 행동지침 및 폭력 상담 및 피해자지원 기관 홍보	빈도	168	373	541
	비율	31.3%	37.8%	35.5%
광범위한 성평등 인식 교육	빈도	179	356	535
	비율	33.4%	36.1%	35.2%
대학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학내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예방 교육 등)	빈도	103	324	427
	비율	19.2%	32.9%	28.1%
지역사회 폭력 대응 안전망 구축	빈도	107	290	397
	비율	20.0%	29.4%	26.1%
기타	빈도	12	9	21
	비율	2.2%	0.9%	1.4%
총계	빈도	1,378	3,034	4,412
	비율	257.0%	307.7%	290.0%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됨(비율과 총계는 케이스 퍼센트 기준)

-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폭력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교육 강화'가 43.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2차 피해방지 예방교육'(42.8%), '친밀한 사이 폭력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개선'(39.9%)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은 '폭력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교육 강화'(46.8%)로 가장 높았으나 남성은 '2차 피해방지 예방교육'(39.7%)이 가장 높게 나타남.

5. 소결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강한 남성 청년들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폭력에 대한 공적 인식과 민감성 제고가 요구됨
-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수준은 2.52점으로 다소 낮았으며, 남성(2.84점)이 여성(2.35점)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남성들은 '남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3.31점)는 의견에 대해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통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통제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안전한 이별을 여성 청년이 더 강하게 원하는 이유는 폭력 대응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 데이트 폭력 관련 인식조사에서는 '안전이별'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3.75%)이 남성(3.5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이 이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대방부터의 보복과 위험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별 후 폭력에 대한 취약함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원치 않아도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의견(여성 1.90점, 남성 2.38점)과 ‘연인 간 다툼에 개입 불가’(여성 2.58점, 남성 3.05점) 의견에는 남녀 간 동의 수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남성이 성관계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나 희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능동적 성 결정권 행사를 사랑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친밀한 관계 형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80%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에 노출돼 있음

- 전체 1,522명 응답자 중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유형의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72명(24.4%)이고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68명(24.2%), 폭력을 하거나 당한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는 263명(17.3%)으로 나타남
- 친밀한 관계에서 응답자들은 피해를 가한 경험보다 당한 경험이 더 많다고 응답함
- 옷차림 통제는 사소하지만, 여성이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통제 행위는 서로 많이 가하고 당하는 상태라 할 수 있음
- 가장 많이 한 가해 폭력 유형은 ‘통제(61%)였고 그 다음이 스토킹(29.2%), 언어적 위협행위(23.9%), 성적 위협 행위(20.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가해 행위는 ‘성적 행위(남성 26.3%, 여성 16.8%)’였고, 그 다음이 통제 행위(남성 55.6%, 여성 64.1%)로 나타남
- 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유형은 ‘통제 행위(65.1%)이고 그 다음이 스토킹(38.7%), 언어적 위협(38.5%), 성적 피해(30.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가장 격차가 나는 당한 행위는 성적 피해경험(남성 25.6%, 여성 33.2%)과 통제 피해경험(남성 60.4%, 여성 67.8%)으로 나타남
- 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폭력 유형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통제 행위’(75.2%)이며, 그다음 스토킹(56.0%), 언어적 위협(54.9%)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폭력 유형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응답자가 직접 폭력을 하거나 당한 경우보다 많았음

□ **데이트 폭력 인지 혹은 인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응답**

-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인지하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8%에 불과했고, 성별로는 여성(9.5%)의 폭력 경험 인지율이 남성(4.5%) 보다 높았음
- 친밀한 관계에서 다양한 폭력 관련 행위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폭력 피해에 대한 인지 혹은 인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피해나 통제보다 신체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언어폭력을 피해라고 인지하는 경우 많음
-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중 85.8%가 자신의 피해를 폭력으로 미인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폭력유형중 가장 높은 폭력 미인지 수준을 보임.
- 통제행위 피해 중 ‘일정을 확인 및 공유를 요구’를 당한 응답자의 85.9%, ‘SNS나 인스타그램을 체크’ 당한 응답자의 81.7%,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요구’ 당한 응답자의 78.4%가 폭력 피해로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언어적 피해 중 ‘갈등 시 너 때문이야’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말(84.2%)이나 ‘욕이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은 경험자의 68.4%가 폭력 경험으로 인지하지 못함
- 신체적 피해 경험 중 ‘몸을 힘껏 밀치거나 움켜쥐는 행위’ 경험자의 80.4%. 물건을 던짐을 당한 경우의 79.7%도 자신은 폭력피해 경험 없다고 응답함. 적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위험한 도구로 해를 끼치는 심각한 폭력행위인 경우도 93.7%가 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하지 않았음
- 성적 피해의 경우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지는 행위’ 경험한 응답자의 82.2%는 자신이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인지하지 않았음
- 스토킹 행위인 ‘원치 않는데 계속 따라다니거나 막아섬’을 경험한 자의 75.2%,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의 72.2%가 폭력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폭력이 발생하면 이별을 요구, 그러나 적극적 대응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음

- 데이트 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으로는 ‘이별을 요구하는 경우’(56.8%)가 가장 높음
- 여성(59.6%)이 남성(45.8%)보다 이별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고 ‘그냥 넘어감’(남성 41.5%, 여성 25.4%) 응답에서는 남성이 비율이 높음
- 폭력 피해 후 경찰이나 전문상담기관에 요청하는 응답자는 남성이 다소 높았음
- 데이트 폭력 피해 직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대처방법을 몰라서’가 (47.1%) 가장 많았음
- 데이트 폭력 피해 후 겪는 어려움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44.9%) ‘일상생활 지장 받음’(40.7%)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응답률이 높았음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폭력을 공적으로 인지하는 시민 대상 교육 원함

-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 25.8%으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위한 적극적 홍보 대책이 요구됨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은 ‘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서비스’로 응답자의 40%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1.2%)과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22.3%)’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
- 폭력 피해 지원기관으로 경찰서를 가장 많이 인지하였고, 실제 이용하는 기관도 경찰서가 많았음
- 남성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등 폭력전문기관 인지율이 여성보다 낮았음
- 데이트 폭력 대응 정책 중 ‘가해자 격리 및 처벌강화’(54.4%),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특별법 제정'(51.8%)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폭력 예방을 정책으로 '폭력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교육 강화'(43.8%), '2차 피해방지 예방교육'(42.8%), '친밀한 사이 폭력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개선'(39.9%) 등을 필요로 하고 있음

대전 청년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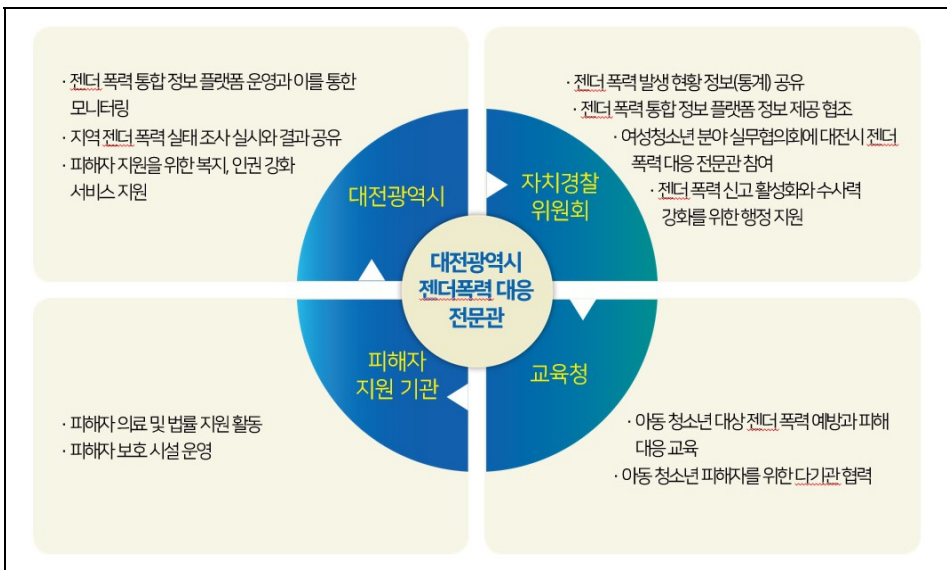
1. 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화와
추진체계 강화
2.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예방 프로그램 실행
3. 피해자 지원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4장 대전 청년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

1. 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화와 추진체계 강화

1) 친밀한 관계로 파고든 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대전시 젠더폭력 대응 전문관’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고 예방 능력을 갖추는 필요 있음
-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실제 행위와 인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음
 - 이러한 폭력피해 실태와 인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폭력 대응과 예방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추진 주체들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해야 함



[그림 4-1] 대전지역 젠더폭력 대응 추진 거버넌스

그림 출처: 주혜진 외(2022), 119쪽.

- 특히 청소년 교육기관과의 강력한 연계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됨

2)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 발굴과 양성

-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경미한 폭력이 반복 강화된다는 특성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필요함
 - 데이트 폭력은 현재까지 하나의 속성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 양상과 특성은 어렵고 복잡한 맥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평등한 관계 형성에 대한 인지와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한 실천 교육이 필요함

2.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방 프로그램 실행

1) 포괄적 성교육의 강화와 확산

- 청소년 시기부터 친밀한 관계 내 평등함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
 - 대전지역 청소년 대상 학교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함
 - 행동과 옷차림, 특히 SNS '통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행위 경험은 60% 이상이 가해하고 피해 당한 것으로 나타남
 - 높은 폭력 노출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응답자들은 유형별 폭력피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청소년기부터 폭력 인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학과 교육과 함께 병행될 필요 있음
 - 폭력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고기관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뿐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안내가 요구됨

2)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과 주체 발굴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한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실행

- 청소년기 성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온라인 매체와 깊은 연관이 있고, 디지털 콘텐츠 선별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어, 교육 전문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양성해야 함
 - ‘성교육’이 아니라 ‘성평등한 관점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이 요구됨 (최윤정 외, 2020: 492~495쪽)
 - ‘포괄적 성교육’은 성과 친밀한 관계, 권리, 폭력, 건강 등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하고 꾸준히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를 기존 교사 중에서도 발굴하고, 새롭게 학교 밖에서도 발굴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과정 내 데이트 폭력 현황 인지 및 예방 교육 강화

-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 데이트 폭력 발생 양상과 현황에 대한 인지, 정보 확산 필요
-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및 인권센터를 통한 사례 발굴과 대전시와의 협력 체계 강화
 - 대전시와 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폭력 예방 교육
 - 대전시가 발굴 양성한 전문 교육 강사 활용
 - 대전시도 대학 상담센터 전문인력 전문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성을 모색할 필요 있음

3. 피해자 지원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1) 피해자 개념의 확장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강화

-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정의와 피해자 지원을 관한 법률이 분화되고 있음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고 실행해야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어떤 행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정의한 뒤 보호하는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어떠한지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박상민, 2023: 84)
-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여성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폭력 양상을 포함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명시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인지도 상승과 기능 강화 요구됨
 - 대전시는 충남대병원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치료하고, 상담과 수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지도는 18.2%에 머물고 있고, 여학생의 인지도도 20.7%로 높지 않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이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처럼, 꾸준한 미디어 노출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인지도 상승을 견인할 필요 있음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예산이 2022년 22억 1백 만원에서 2023년 20억 3천 8백 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은, 단기적으로 이용 인원이 줄어들었다 해도, 개선이 필요함
- 폭력 발생과 상담 건수 등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 보다 강화될 필요 있음
- 피해자 지원강화 및 일상 복귀 프로그램 확대 강화
 - 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복귀, 원만한 대인관계 등 지원시설을 통한 유형별 대응책 강화 추진이 요구됨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활성화

- 데이트 폭력 대응 방법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대책은 '가해자 격리 및 처벌 강화'였음
- 데이트 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폭력 전과 공개제도 도입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나, 낙인효과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효율적인 인지행동 프로그램과 자기조절향상 능력 프로그램 등 공감 능력 향상과 실질적 행위 교정을 위한 심리 치료를 제안할 수 있음 (최성식, 2022: 35쪽)

참고문헌

- 강희영·박순주(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강희영(2020), 『서울시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류유선·오윤희(2022), 『2022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가족의 삶』,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박상민(2023), “데이트 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젠더법학』 14(2): 67-94.
- 심선희·최금순(2023), <경기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2018),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8. 2. 22.)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여성폭력통계』.
- 이화진·강지영·정여진(2020),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혜원·박철현·심선희·최금순(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주혜진·류유선·최성은·장온정(2022), 『민선8기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전시 성주류화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최성식(2022),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한양법학』 33(2): 23~40.
- 최윤정·박성정·김은경·김인순·김애라·김효경·박민주(2020),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I):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록

부록

[부록 1-1] 설문조사지

구분*)	내용	
안내문구	<p>안녕하십니까? (재)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정책개발연구기관으로, 대전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는 대전시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니, 바쁘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응답한 선착순 600분께 스타벅스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리며, 응답 내용은 연구원 자료보관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보관됩니다. 고맙습니다.</p>	
	<p>*귀하의 응답 내용은 관련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조사수행기관: 대전세종연구원 조사기간: 2023.08.25~2023.09.04 연구책임: 주혜진 책임연구위원</p>	<p>Tel. 042-530-3522 Fax. 042-530-3559 E-mail : totoro@dsi.re.kr</p>
	<p>다음의 사항에 동의하시면 설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본 설문조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내가 원할 때 설문 응답을 중지할 수 있다. 나는, 응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진이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로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설문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모바일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2023년 8월</p>	
구분	문항	답변
0.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별명	(예: 꿈돌이)
	전화번호	
	대전 소재 대학(원) 학생이십니까?	① 재학생 (휴학생) ② 아니오 (설문 중단)

* '구분'은 연구진에 의한 구분을 의미하며, 실제 설문에서는 보이지 않음

2.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인식	연인 간 일상의 일정과 누구와 만나는지 등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분이 나쁘면 애인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풀이를 할 수도 있다					
	애인이 성관계를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응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다					
	스킨십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렵다					
	이별할 때에는 빨리 헤어지기보다 물리적, 정신적 피해없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답변					
3. 폭력 경험	3-1. 한 적 있는 행동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나한테 알리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SNS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체크함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옷차림을 제한함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 공유를 요구함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함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름 <input type="checkbox"/> 갈등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상대방 탓을 주로 함 <input type="checkbox"/> 아끼는 물건 또는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겁주는 말을 함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밀침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뺨을 때림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비거나 멍,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림 <input type="checkbox"/> 다룰 때 물건을 던짐 <input type="checkbox"/>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침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하는 일(아르바이트, 직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 두게 함 <input type="checkbox"/> 상대에게 고가의 선물을 달라고 함 <input type="checkbox"/> 상대 소유의 고가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상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한 적 없다						

3. 폭력 경험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몸(손, 머리 등 신체 일부)을 만짐 <input type="checkbox"/> 상대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함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함 <input type="checkbox"/> 상대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함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나온 촬영물을 지인이나 주변인과 공유함(단톡방 올리기 등) <input type="checkbox"/>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한 적 없다
	3-2. 경험한 적 있는 행동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알리도록 요구함 <input type="checkbox"/> 나의 SNS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체크함 <input type="checkbox"/> 나의 옷차림을 제한함 <input type="checkbox"/> 나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공유를 요구함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경험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함 <input type="checkbox"/> 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름 <input type="checkbox"/> 갈등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내 탓을 함 <input type="checkbox"/>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겁주는 말을 함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경험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나의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밀침 <input type="checkbox"/> 나의 뺨을 때림 <input type="checkbox"/> 내가 빠거나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림 <input type="checkbox"/> 다룰 때 나에게 물건을 던짐 <input type="checkbox"/>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나에게 해를 끼침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경험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하는 일(아르바이트, 직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 두게 함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고가의 선물을 달라고 함 <input type="checkbox"/> 내 소유의 고가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경험 한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손, 머리 등 신체 일부)을 만짐 <input type="checkbox"/> 내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함 <input type="checkbox"/>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함 <input type="checkbox"/> 나의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함 <input type="checkbox"/> 내가 나온 촬영물을 지인이나 주변인과 공유함(단톡방 올리기 등)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경험 한 적 없다	

3. 폭력 경험	<input type="checkbox"/> SNS 등을 이용하여 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옴 <input type="checkbox"/> 원치 않는데 계속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막아섬 <input type="checkbox"/> 집,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input type="checkbox"/>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내게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물건을 둠 <input type="checkbox"/> 내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옴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경험 한 적 없다	
	3-3.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행동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연인의 일정과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고 공유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SNS 계정 등을 체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암호를 물어달라거나 보여달라고 조르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갈등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상대를 탓을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삐거나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리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다룰 때 물건을 던지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해를 가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대방 소유의 고가물건을 쓰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는데 몸(머리, 손 등 신체 일부)을 만지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연인 사이 촬영물을 지인이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행위(단톡방 올리기 등)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SNS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원치 않는데 계속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집,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집에 찾아가거나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나는 위 행위들을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구분	문항	답변
4.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4. 귀하는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 (애인, 전애인, 썸타는 사이, 호감을 표현한 상대 등)으로부터 폭력(신체, 언어, 통제, 성, 스토킹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문항 4-4번으로 이동)

	<p>4-1. 귀하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대응한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input type="checkbox"/> 이별을 요구했다 <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했다 <input type="checkbox"/> 조용히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했다 <input type="checkbox"/> 친구와 주변 지인과 의논했다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input type="checkbox"/> 학교 내 상담기관과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들과 의논했다 <input type="checkbox"/> 경찰에 신고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냥 넘어갔다 (문항 4-1-1 번으로 이동)
<p>4.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p>	<p>4-1-1. 피해를 경험하고도 ‘그냥 넘어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대응을 할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 <input type="checkbox"/>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상대가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보복할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주변에 소문나고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p>4-2. 귀하가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 (우울감, 불면, 공황장애 등) <input type="checkbox"/> 학업에 집중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회피, 불신감 등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input type="checkbox"/>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약물 등에 의존하게 됐다 <input type="checkbox"/>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어려움 작성 _____

	<p>4-3. 귀하가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경험한 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input type="checkbox"/>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미리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등) <input type="checkbox"/> 나의 연애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 소문이 유포되었다 <input type="checkbox"/>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를 비난하거나 행위자를 두둔하였다 <input type="checkbox"/> 행위자가 피해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압박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처우 또는 인신공격을 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처벌 과정에서)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input type="checkbox"/> 집단 따돌림, 폭언, 폭행 등을 겪었다(SNS 등을 이용한 행위 포함)
<p>4.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p>	<p>4-4. 귀하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상담소 <input type="checkbox"/> 여성긴급전화 1366 <input type="checkbox"/> 경찰서(112) <input type="checkbox"/> 해바라기 센터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폭력 상담소 <input type="checkbox"/> 학교내 성폭력 및 인권상담 지원 기관 <input type="checkbox"/>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input type="checkbox"/>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p>4-5. 귀하는 대전광역시가 여성 대상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실행하는 다음의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신고, 삭제 등)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플랫폼 구축 <input type="checkbox"/>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p>4.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p>	<p>4-6. 귀하는 다음의 기관을 이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모두 체크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상담소 <input type="checkbox"/> 여성긴급전화 1366 <input type="checkbox"/> 경찰서(112) <input type="checkbox"/> 해바라기 센터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폭력 상담소 <input type="checkbox"/> 학교내 성폭력 및 인권상담 지원 기관 <input type="checkbox"/>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input type="checkbox"/>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p>5. 데이트 폭력 피해 대응</p>	<p>5-1. 귀하는 친밀한 관계(연애, 썸, 호감 표현 등) 내 발생하는 폭력(신체, 언어, 통제, 성, 스토킹 등)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p> <p>5-2. 귀하는 친밀한 관계(연애, 썸, 호감 표현 등) 내 발생하는 폭력(신체, 언어, 통제, 성, 스토킹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 <input type="checkbox"/> 대전시 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격리 및 처벌 강화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정비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 성폭력과 함께 공동대응팀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input type="checkbox"/>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재정비 <input type="checkbox"/> 폭력 피해자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 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input type="checkbox"/> 광범위한 성평등 인식 교육 <input type="checkbox"/> 친밀한 사이 폭력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개선 <input type="checkbox"/> 폭력 상황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건처리 관련자 예방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상대 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 인식 개선 <input type="checkbox"/> 폭력 피해 대응 행동지침 및 폭력 상담 및 피해자지원 기관 홍보 <input type="checkbox"/> 대학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학내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예방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안 _____